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과 세계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서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1973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하였다가 1986년 현재의 과천관에 현대적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미술관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1998년 덕수궁 내에 분관인 덕수궁미술관을 개관하였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전문성을 살린 고객 중심의 미술관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치하였던 종로구 소격동 부지에 2013년 새로운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2009년 새로운 미술관 건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0년 아이디어 공모, 건축현상설계를 거쳐 현재 미술관 건립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시실을 비롯하여 자료관, 프로젝트 갤러리, 영화관, 다목적 홀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다양한 예술장르를 수용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이 휴관  
**발권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관람시간** 3월~10월  
· 화, 수,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오후 6시 ~ 9시 기획전시 무료관람)  
11월~2월  
· 화, 수,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오후 5시 ~ 9시 기획전시 무료관람)  
문화가 있는 날(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하차  
대공원역 1, 2, 3번 출입구 약 20분 도보 또는  
4번출구 셔틀버스, 2번 출구 코끼리열차 이용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이 휴관  
**발권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관람시간**  
·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금, 토,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 관람시간은 전시별로 달라질 수 있음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하차  
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 4분 도보  
덕수궁 정문(대한문) 통과

**휴관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이 휴관  
**발권시간**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관람시간**  
· 화, 목, 금,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수,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야간개장 오후 6시 ~ 9시 기획전시 무료관람)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약 14분 도보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하차  
광화문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약 17분 도보

**㉠ ㉡**  
2013. 6. ~ 2014. 8.  
사진소장품특별전: 사진의 눈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은행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사진의 눈>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파헤치는 동시대 사진의 몇 가지 경향들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시각의 문제는 곧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진위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이미지의 범람 속에서, 즉, 더 이상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는 곧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  
2013. 7. ~ 2014. 5.  
디자인: 또 다른 언어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서울관 개관을 시작으로 과천관, 덕수궁관의 개관에 이어 2015년에 개관 예정인 청주관을 통합한 4관 체제를 앞두고, 동시대 시각예술 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사진, 공예, 건축 상설전시실에 이어 2013년 7월에 디자인을 위한 전시 전용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그 첫 전시로 <디자인: 또 다른 언어>를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2013년 국제 디자인계가 가장 주목하는 우리나라 동시대 디자이너 10인이 참여하여 모두 신작을 제작함으로써 동시대 디자인 분야가 실험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 ㉤**  
2013. 8. ~ 2014. 5.  
한국 현대미술 거대서사 II



<한국현대미술 거대서사 II>는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의 한국미술을 한국적, 민족적, 시간성 등 거대 담론으로 구성했던 <한국현대미술 거대서사 I>을 잇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어, 현실 인식의 예리한 시각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는 현대미술의 가치를 공유한 작업을 전시하고자 하는 이 시대 작가들의 조정언어를 확인할 수 있다.

**㉠ ㉡ ㉢**  
2013. 8. ~ 2014. 5.  
소장품특별기획전: 권진규, 김정숙



이 전시는 사색의 깊이를 격조 높은 구성조각으로 보여주었던 조각가 권진규(1922~1973)와 현대조각의 표현기법과 조형실험을 확장시킨 조각가이자 교육자였던 김정숙(1917~1991)의 이중작품특별전이다. 조각이 유입되고 정착되던 시기 한국미술사의 주요한 두 작가의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신 유족과 소장가의 깊은 뜻이 이번 전시를 통해 널리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 ㉤**  
2013. 10. ~ 2014. 5.  
미디어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뉴미디어 소장품전 <The Future is Now>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87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뉴미디어 아트와 관련해서 만들어온 '미래'를 짚어보는 전시이다.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관했던 시기에 선구적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되짚어보면서 이전의 활동들이 오늘날 뉴미디어 아트의 토양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금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엄정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  
2013. 10. ~ 2014. 5.  
TRANSFER 한국-NRW



<TRANSFER 한국-NRW> 전시는 마누엘 그라프, 함경아, 정 승, 자샤 폴레, 유르겐 슈타 등 5명의 한국, 독일작가의 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와 미술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 주목한 전시이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독일과 한국이라는 상이한 배경 속에서도 강력한 일상의 위상과 기술의 진화를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는 현대미술의 가치를 공유한 작업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복사하고, 전환하며, 환승하고 이동하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들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  
2014. 1. ~ 2014. 7.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



<이타미 준: 바람의 조형>전은 재일동포 건축가 이타미 준(1937~2011, 한국명 유동룡)이 탐문했던 건축과 예술의 관계와 합일의 여정을 그리는 전시다. 미술관에 기증된 이타미 준 아카이브와 유족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번 회고전은 일본에서의 1970년대 초기 작업부터 말년의 제주도 프로젝트까지 40여년에 걸친 그의 건축 세계를 아우른다. 건축 작업뿐만 아니라 회화, 서예, 소품 등 다양한 작품 속에 담긴 건축가의 심안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일본, 건축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 든 작가의 자취가 펼쳐진다.

**㉢ ㉣**  
2014. 3. ~ 2014. 7.  
한국현대미술작가: 조평휘



<구름과 산 조평휘>전은 한국 현대산수화의 대표적인 작가 조평휘의 60년간의 작업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10여 년간의 추상실험의 과정을 통해 얻은 현대적 조형 감각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필세와 장엄한 구도를 특색으로 하는 그의 예술세계를 드로잉과 60여 점의 회화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 ㉣ ㉤**  
2014. 4. ~ 2014. 7.  
한국현대미술작가: 최만린



<최만린>전은 한국 현대조각의 전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최만린의 작품세계 전반을 조망하는 회고전이다. 최만린은 해방 이후 국내미술대학 출신 1세대 작가로서 단절된 전통의 계승과 현대성의 조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한국적 조각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자기 성찰을 통해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해냈다.

**㉢ ㉣**  
2014. 4. ~ 2014. 8.  
한국현대미술작가: 강찬균



<강찬균>전은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조형각각으로 전통 금속공예의 맥을 이어온 1세대 금속공예가 강찬균의 60여년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특별 회고전이다. 전통적인 기법과 재료, 기술을 발견하고 실험하는 장인적 섬세함과 더불어, 작가 특유의 해학과 기지, 시적상상(詩的想像)이 표현된 100여점의 작품을 시대별로 선보인다. 거칠고 투박한 소재들이 작가의 서사적 상상력과 만나 우화(寓話)로 변형되는 연금술적 순간을 보여준다.

**㉢ ㉣**  
2014. 6. ~ 2014. 12.  
한국현대미술작가: 이건용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향후 한국현대미술사의 역사적 정립을 목표로 지향하게 된다. <한국현대미술작가: 이건용>전은 이러한 지향점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시이다. 본 전시는 4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견지하며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독특한 자리를 지켜온 대가 이건용의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여 보는 무대를 선보인다.

**㉢ ㉣**  
2014. 6. ~ 2014. 12.  
디자인전: 사물학 - 디자인과 예술



디자인은 아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의 전달과 경험의 수용이 점차로 중요해지면서 두 분야는 계속해서 융화되어 가고 있다. 본 전시는 서로 다른 장르들의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 ㉣**  
2014. 6. ~ 2014. 12.  
신소장품 특별기획전 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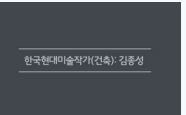
<신소장품 특별기획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중장기 및 연간 수집정책 하에 한국근현대미술과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는 주요 작품을 수집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가장 주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소장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미술사적·미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신소장품>전을 기획하고 있다. 2012년에는 다량의 사진작품이 기증되었고 현대공예 부문을 집중수집 하였다. 2013년에는 부문별 소장품 분석을 통해 동양화 부문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보강하였다.

**㉢ ㉣ ㉤**  
2014. 8. ~ 2014. 10.  
올해의 작가상 2014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여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수상제도로써,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들을 전시하고 후원함으로써 한국현대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심사위원단의 작가 심층 인터뷰와 전시 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이번<올해의 작가상 2014>를 통해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  
2014. 8. ~  
한국현대미술작가: 김중성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건축상설전시실에서는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 건축 부문의 첫 전시인 김중성 전을 개최한다.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원로작가로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발전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작가는 현대건축 4대 거장 중 한명인 미스 반 데어 로헤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로도 알려져 있다. 본 전시를 통해 김중성의 삶과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10-200 서울시 용마루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100-120 서울시 용마루 세종대로 9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427-701 경기도 과천시 팔림로 313

www.mca.go.kr  
www.facebook.com/korenmca (Korean)  
www.facebook.com/mnecakorea (English)  
www.twitter.com/mnecakorea